

釜山市 第3次 上水道 擴張事業에 參與하고

- 管路의 施工方法 改良에 대하여 -

鄭 順 泰

人間이 生을 営為하는데 있어서 물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이다.

大自然의 신비에 따라 생겼다 없어지는 이물은 과연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일까? 잠깐 이러한 것을 생각해보는 것도 매우 興味 있는 일이다.

하늘에서 落下되는 비와 눈으로 因하여 생기는 물이 있는가 하면 냇가 개울로 흘러오는 自然水가 있고 땅에서 솟아나는 地下水가 있다.

비나 눈으로 생기는 물은 汚染된 大氣의 各種 有害한 元素를 内包하고 있어 그대로 飲料水로 使用에는 適合하지 않은 것이다.

地下水는 净水는 잘 되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각種 病菌 等이 들어있어 그대로 사용에는 또한 適合치 않은 것이다.

땅위로 흐르는 물 이것을 우리 人間은 여러가지 방법을 利用処理하여 飲料水 또는 工業用水로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今般 釜山市가 都市人口의 密集과 繁榮을 가는 祖國의 發展에 따라 날로 늘어 가는 工場增設이나 生活에 利用할 必要한 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莫大한 予算을 投入하여 強力히 推進한 第3次 上水道 擴張事業의 竣工에 즈음하여 敬賀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釜山市의 오랜 宿願事業이든 이 事業을 当初 完工計劃보다 約 4個月이나 短縮 마무리 하였음을 大工事를 陣頭指揮하시고 畫夜로 手苦하신 許起道水道局長 以下 여러 직원들의 努苦에 衷心으로 感謝와 激励의 말씀을 드립니다.

洛東江下流인 慶南勿禁面 取水場으로 부터 釜山市西区 富民洞 法院앞까지 長長 33km의 管路, 管

固城産業社長 · 本會會員

経, 1,350m ~ 800m로 巨大한 이 工事는 難題와 隘路가 많았음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勿禁取水場에서 自然水를 取水하여 原水를 華明洞淨水場에 보내 净水 및 藥品投入殺菌等의 処理를 거쳐 市内로 보내지면 德浦펌프場에서 加圧하고 沙上工業團地를 지나 槐亭洞펌프場으로 보내지고 槐亭洞加圧펌프場에서 다시 加圧하여 대티널을 넘어서 法院앞에서 既存管과 連結되는 것 管路의 概要이다.

이 工事에는 三扶土建 美隆建設 新韓產業 等의 會社가 施工을 맡었으며 韓國鑄鐵管 東亞콘크리트 유니온 벨브 固城產業 等의 會社가 管과 制水弁類를 利川電氣, 韓永工業 等이 各種 機械類를 제작 납품하여 이 事業에 적극 협조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巨大한 事業의 一翼을 担当했던 저로서 우리는 営利를 目的으로 하는 商工業者라 하더라도 利益을 超越하여 国家나 地方自治團体에 공헌하고 社會에 이바지 하는 信念을 가져야할 것을 강조하는 바 입니다.

管路가 저희 工場앞을 通過한 관계로 工事設計 施工監督 試驗등으로 주야로 수고하셨던 관계직원들의 勞苦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며 隘路가 있었을 때 저는 무엇을 協助해야 되겠는가 걱정도 해 보았으며 나에게 要請된 事項이 있을 때는 밤을 새워가며 아무런 条件도 없이 協力해 왔던 事實도 記憶에서 아직 사라지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 工事는 73年度부터 着工해 왔던 관계로 全国各 會社로 부터 納品된 各種機資材가 作動上 隘路가 있었든 것도 事實입니다. 特히 排氣弁 制水弁 기타 鋼管類에 있어서는 補修, 部分品交換 等의 事例가 있었고 플랜지 接管部에 漏水가多少 있었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試驗通水를 거쳐 予定된 날짜보다 4個月 程度 앞 당겨 75. 8. 29. 午前 11時를 期하여 아무 事故 없이 通水를 하였든 것입니다.

1日 送水 120,000吨의 이 工事を 마친 때를 빌려서 우리나라 上水道의 發展을 위하여 管路의 施工과 方法에 있어서 이렇게 하였으면 하는 몇 가지 意見을 提示하고자 합니다.

1. 伸縮用管 採択에 있어서

本管을 鋼管을 使用할 때의 工事에 있어서 摄氏 100度일 때 1m당 1.2‰ 伸縮되는 鋼管은 氣溫의 变化에 크게 伸縮되므로 伸縮用管 選択에 있어서相當한 檢討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從來까지 使用해 오든 伸縮用管은 伸縮距離가 最低 90‰ ~ 140‰로 되어 있으나 純伸縮거리는 85‰ ~ 127‰로 되어 있습니다. 押輪을 눌려서 漏水를 막고 있는 고무輪은 管徑 80mm부터 1500mm 까지 5‰ 두께로 규일한 치수로서 되었기에 氣溫이 氷点以下로 下降하였을 때 고무輪은 1‰ 내지 2‰ 정도 収縮될 수 있어 實際 漏水를 막는 고무輪 두께는 3‰ 밖에 남지 않아 大口径管에 있어서는 漏水의 염려가 크게 있어 不完全한 것이며 押輪을 2개로 構造되었기로 漏水의 위험처가 2개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伸縮用管의 設置후 漏水가 있어 補修코자 할 때 本管体를 切断치 않으면 不可能한 것도 事実입니다.

故로 今後에 使用할 伸縮用管은 純伸縮 거리가 최저 200‰ 내지 300‰以上 될 수가 있고 漏水의 위험처가 1/2로 減少될 수 있는 구조로 60cm 이상의 긴 앙카 볼트 代身에 通常의 短은 볼트를 使用할 수도 있고 박킹은 고무륜 代身에 수축과 老化가 없는 材質로 된 것과 設置後 補修時 本管体를 切断치 않고 손을 볼 수 있는 우수한 製品의 供給이 긴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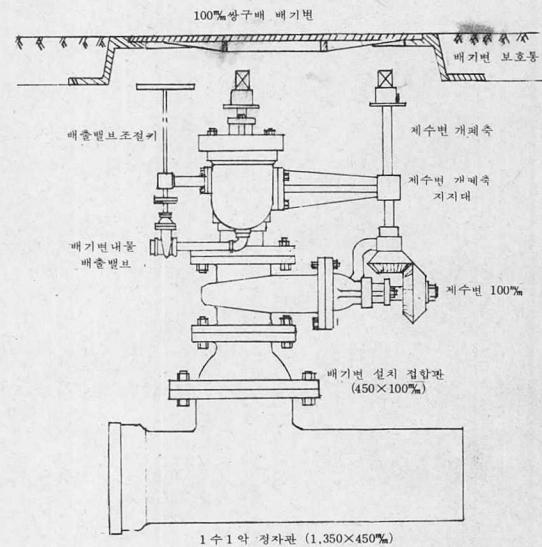
밸브의 補修時도 伸縮用管 볼트 낫드만 나해하면 밸브를 그대로 헤체할 수도 있는 밸브접관의 利用도 권유하고 싶은 物品입니다.

2. 排氣弁 選択과 設置에 있어서

管徑 1350mm 以上的 管路에 있어서는 100‰ 双口배기변 使用 代身에 150‰ 내지 250‰의 双口배기변을 設置하면 더 좋은 效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工業用水를 充足히 위하

여 送水管径도 大形化되어 감에 따라 管径에 比例한 배기변의 배기口径도 計算에 依한 選択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 배기변의 設置에 있어서 従來까지는 배기변의 口徑을 基準으로 本管에서 배기변 정자관을 매개하여 플랜지형으로 分岐引出시키고 제수변을 設置한 그위에다 배기변을 접속시켰던 것이나 별표 도시와 같은 方法을 利用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림-1〉 배기변 설치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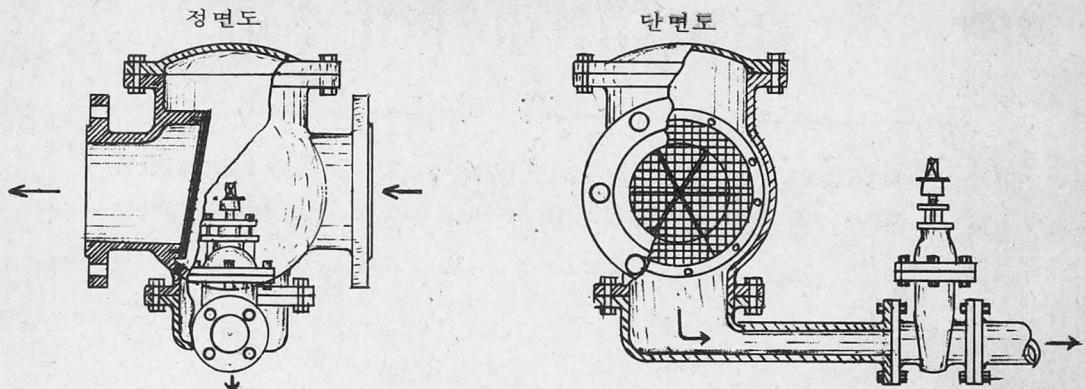
從前까지와는 달리 本管 管径의 1/4 정도로 배기변정자관 플랜지형 支管을 引出하여 양악 特殊반달형 片落管(일명 배기변설치 접속관)을 媒介하여 (종래 사용치 않은 것) 제수변 접속 다음에 배기변을 設置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方法을 拾하게 되면 管径의 크기에 구애됨이 없이 空氣의 排出量도 比例的으로 크게 많이 排出될 수 있어 空氣의 부디침 차단등이 없어지고 管体의 爆發을 根本的으로 없게 하는 特徵을 가진 가장理想的인 方法입니다.

아울러 本管內 掃除를 할 必要가 있을 때나 人이 管内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이 양악특수반달형 편락관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배기변 조절용 제수변의 구조에 있어서

管路의 제일 높은 자리에 배기변 밑에 設置되는



〈그림-2〉 管内 不純物 濾過装置(實用新案 第5120号)

배기변조절제수변은 堅형식 핸들부 제수변을 橫으로 눕혀 堅形으로 開閉하는 方法으로는 機械構造上 부합되지 않음은勿論 急히 제수변을 열어야 할 때나一般的인 開閉時 큰 不便도 있고 作動上 故障도 심하였다.

이러한 問題도 図-1에 依한 方法을 利用하면 전부 해결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4. 펌프인페라 보호용 및 管内不純物濾過 裝置管에 대하여

原水의 供給때 管内에 들어오게 되는 不純物을排出밸브만 열어주면 水圧에 의하여 自動的으로

排出되는 이裝置管은 펌프인페라나 制水弁 디스크사이트 破損을 防止하고 壽命을 延長시키며 特殊塗裝管에서 코팅材의 부스러기가 管内에 떠다니는 것을 防止하여 恒常 黏은 물을 供給할 수 있고, 原水를 그대로 供給하는 工業用水의 경우 물고기나 기타 不純物을 除去할 수 있는 特徵을 가진 管内不純物濾過裝置로서 管路에 設置된 資材의 壽命을 延長시키며, 予算節減의 効果가 크고 使用中 交替가容易한것等 여러가지 長点을 가지고 있습니다.

会員動靜

- 株式会社 유니온製作所는 서울事務所를 開設하였습니다.
서울特別市 鍾路区 都染洞 132番地 桂南빌딩 702号. 電話 73-3716番
- 大吾企業株式会社는 새로운 事務室로 移転을 하였습니다.
서울特別市 中区 武橋洞 21-1番地 영희빌딩 506号. 電話 23-5634-5番
- 本会 李炳周理事께서는 지난번 全羅南道國土管理廳長으로 栄轉하였습니다.
- 本会 盧海圭理事께서는 建設部產業立地局 工業用水課長으로 赴任하였습니다.
- 協会의 發展을 積極 도와주시던 本会理事이신 韓國鐵管工業株式会社 全用煥 社長께서 75. 8. 29. 別世하였습니다. 삼가 寅福을 빕니다.